

## 에스더서 언어의 통시적 다양성에 대한 재고

김경식\*

### 1. 들어가는 말

구약성서의 책들은 언제 저술되었는가? 이는 성서를 연구하는 이들의 풀리지 않는 의문이자 중요한 과제이다. 성서의 형성 과정과 그 역사를 탐구하는 일이 어려운 이유는 이와 관련한 직접적인 근거 자료가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서에 ‘기록된 언어’의 특징을 근거로 특정 본문의 연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견해는 충분히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방법론의 전제는 다음과 같다. 언어는 근본적으로 ‘변이의 속성’을 갖고 있으며, 유다는 ‘포로기’와 ‘디아스포라’의 경험을 통해 외래어(특히 아람어)의 강한 영향을 받게 되면서, 히브리어 역시 급격한 변이 과정을 겪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포로기를 기점으로 하여 어떤 언어 변이가 발생했는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언어 변이의 경향성과 흐름을 구조화하여 특정 본문의 저술 혹은 편집 시기를 파악하는 데에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아비 후르비츠(A. Hurvitz)를 비롯하여 성서 히브리어의 역사적 통시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기본적인 전제이다.<sup>1)</sup>

\* Bar-Ilan University에서 성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감리교신학대학교 구약학 객원교수. [kungsik@gmail.com](mailto:kungsik@gmail.com).

1) 성서의 언어적 특성에 기반하여 본문의 연대를 결정하려는 시도는 후르비츠(A. Hurvitz)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다(후르비츠의 첫 논문은 시편에 관한 것으로 1968년에 출판되었고, 그의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박사논문은 1972년에 출간되었다). 역대기와 사무엘서/열왕기서에 나타난 병렬 구문을 비교하여 언어의 시대적 차이를 밝히려고 시도했던 게제니우스(W. Gesenius, 1815)로부터 시작하여,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서 등에 나타난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방법론이 어느 정도의 객관성을 담보한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확일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언어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화자나 저자가 언어 변이의 흐름과 관계없이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특정한 언어 표현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sup>2)</sup> 옛 어투가 반영된 개역 성경이 현재까지도 개신교의 주된 경전으로 ‘선택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옛 어투가 부여하는 종교적 권위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어 특성을 통해 본문의 형성 연대를 판단할 때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에스더서 마소라 본문은 페르시아 시대의 배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른 시기와 후대의 언어 특징이 모두 나타나고 있으며, 그만큼 언어적인 복잡성이 드러나는 책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에스더서는 통시적 언어 변이 과정에 있어 과도기적 성격을 드러내는 책이라 여겨진다. 문학 장르의 측면에서 보면, 에스더서는 일반적으로 ‘역사 노벨라’로 분류된다.<sup>3)</sup> 노벨라는 플롯 안에서 역동적으로 소통하는 화자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sup>4)</sup> 노벨라 플롯의 역동성은 등장인물의 행동과 대화에 대한 생동감 있는 묘사를 통해 드러난다. 그래서 노벨라의 언어는 다른 본문 유형에 비교해 볼 때 더 ‘섬세하게 선택된’ 언어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언어의 선택’을 보여주는 구약성서 내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모

LBH(Late Biblical Hebrew)의 특징을 정리한 크로파트(A. Kropat, 1909), 그리고 후기 언어에 대한 아람어의 영향을 제시한 드라이버(S. R. Driver, 1956) 등이 있다. 이에 대해 잘 정돈된 연구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Dong-Hyuk Kim, *Early Biblical Hebrew, Late Biblical Hebrew and Linguistic Variability: A Sociolinguistic Evaluation of the Linguistic Dating of Biblical Texts* (Leiden: Brill, 2013), 11-15. 후르비츠의 공헌은 당시까지 제안된 성서 히브리어의 다양한 통시적 측면을 고려하여, 포로기 이전의 이른 시기의 특징을 드러내는 히브리어(Early Biblical Hebrew)와 포로기 이후에 나타나는 후대의 히브리어(Late Biblical Hebrew)를 구분하는 합리적인 기준과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 2) ‘통시적 변화’가 아닌 ‘임의적인 선택’의 측면에서 후르비츠의 방법론을 반박하는 대표적인 학자들은 영(I. Young), 레젝코(R. Rezetko) 등이다. 다음을 참고하라. I. Young, R. Rezetko, and M. Ehrensverd, *Linguistic Dating of Biblical Texts*, vol 2 (London: Equinox, 2008).
- 3) 베를린(A. Berlin)은 룯기, 에스더, 그리고 다니엘서를 성서의 대표적인 역사 노벨라로 분류한다. A. 베를린, “역사 노벨라: 룯기, 에스더, 다니엘”, Z. 탈쉬르 편, 『구약 성경문학 탐구』, 한국이스라엘학회 역 (서울: CLC, 2022), 582-583. ‘역사 노벨라’라는 표현은 표면적으로 내용상의 ‘허구성’을 강조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그 이야기는 실제 역사에 근거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 4) 흥미롭게도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 룯기, 그리고 에스더 등과 같이 전형적인 노벨라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본문들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버만(J. Berman)은 노벨라의 성격을 지닌 성서 본문이 인간의 복잡성을 역동적이고 면밀하게 잘 드러내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 인간의 능동적인 역할을 잘 드러내고 있음을 말한다. 다음을 보라. J. Berman, *Created Equa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135-143.

방 아람어체’(Pseudo-Aramaism)의 사용이다. 일반적으로 ‘아람어’ 표현은 후대 히브리어의 대표적인 특징이라 여겨지지만,<sup>5)</sup> ‘모방 아람어체’는 시대적인 요인과 관계없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담화자와 구별되는 ‘이국적’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sup>6)</sup> 그리고 에스라서에 나타난 아람어 본문 부분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의 시각과 사고방식을 보다 강하게 전달하고 있으며, 융합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언어적 간극을 통해 나타내는 효과를 이루어내고 있다.<sup>7)</sup> 언어적으로 이방성을 드러내는 또 다른 흥미로운 예는 의도적으로 보이는 ‘문법적인 혼동’으로 일반적인 히브리어 문법과 어긋나는 어투는 이방성을 드러내기 위한 문학 장치라 지적되기도 한다.<sup>8)</sup> 이와 대조적으로 후기 본문에 나타나는 특징은 ‘의고체(擬古體)’(Pseudo-Archaism) 표현 방식으로 후기의 언어보다는 의도적으로 옛 어투를 적용함으로 앞선 성서 전통과의 연속성과 권위를 부각하기 위한 문체라 이해되고 있다.<sup>9)</sup>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의 표면적 특징만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특정한 언어 표현을 담고 있는 책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과 이데올로기, 그리고 저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필자는 통시적으로 복잡한 성격을 드러내는 에스더서의 언어 표현 방식의 요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통시성에 초

5) 아람어는 이미 이스라엘 왕국 시대 때부터 일종의 국제 공용어(lingua franca)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LBH의 특징으로 규정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람어 현상과 관련한 다양한 측면을 다룬 후르비츠의 연구를 참고하라. A. Hurvitz, “The Chronological Significance of ‘Aramaisms’ in Biblical Hebrew”, *Israel Exploration Journal* 18:4 (1968), 234-240. 또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지리적인 근접성으로 인해 북이스라엘 방언(예를 들어 사 5장의 ‘드보라의 노래’)에서 아람어의 영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북이스라엘 히브리어의 특징에 대해 다음을 참고하라. G. A. Rendsburg, “Northern Hebrew through Time: From the Song of Deborah to the Mishnah”, C. L. Miller-Naudé and Z. Zevit, eds., *Diachrony in Biblical Hebrew* (Winona Lake, Ind.: Eisenbrauns, 2012), 339-360.

6) A. Hurvitz, “The Chronological Significance of ‘Aramaisms’ in Biblical Hebrew”, 236-237. 후르비츠는 왕상 20:10의 שַׁפְּטָא (=שֹׁפֵט)과 왕하 6:13의 אִיכָה (=אִיפָה)를 예로 들고 있다(Ibid., 236, n. 14).

7) J. Berman, “The Narratological Purpose of Aramaic Prose in Ezra 4.8–6.18”, *Aramaic Studies* 5:2 (2007), 165-191.

8) 이는 룻기의 히브리어와 관련하여 종종 지적된다. 명사 어미를 혼동하는 듯한 룻의 담화 특징을 지적하는 T. H. Lim, “How Good Was Ruth’s Hebrew? Ethnic and Linguistic Otherness in the Book of Ruth”, J. Collins and D. Harlow, eds., *Second Temple Judaism* (Grand Rapids: Collins. W. B. Eerdmans Pub. Co., 2011), 101-115와 모압 여인 룻의 이방성을 반영하는 요소들을 제시한 R. D. Holmstedt, *Ruth: a Handbook on the Hebrew Text* (Waco: Baylor University Press, 2010), 41-49를 참고하라.

9)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참고하라. J. Joosten, “Pseudo-Classicism in Late Biblical Hebrew”, *ZAW* 128:1 (2016), 16-29.

점을 둔 에스더서의 언어에 대한 선행 연구를 제시하고,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통시성을 드러내는 에스더서의 언어 요소가 단순히 통시성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저자의 문학적 의도에 따른 선택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몇 가지 예들을 통해 제시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특정한 언어 요소의 성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이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 2. 에스더서 언어의 통시성에 관한 선행 연구

에스더서 언어의 통시적 특징에 대한 논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서 히브리어의 통시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간략히 제시한 다음, 에스더서의 언어의 통시성에 대한 선행 연구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2.1. 성서 히브리어의 통시성에 관한 논의들<sup>10)</sup>

성서 히브리어의 통시성과 관련한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사는 히브리어의 통시적 특성을 통해 구약성서 본문의 연대를 가늠할 수 있는지다. 이와 관련하여 초기 성서 히브리어(Early Biblical Hebrew, 이하 EBH)<sup>11)</sup> 후기 성서 히브리어(Late Biblical Hebrew, 이하 LBH)를 구분하는 체계적인 방법론을 정립한 후르비츠와 그의 방법론을 따르는 이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기준’으로 하여 EBH와 LBH 사이에 명백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sup>12)</sup> LBH는 아람어 내지, 랍비 문헌의 언어가 되는 미슈나 히브리어(Mishnaic Hebrew, 이하 MH)에 가까운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방법론적 기준을 통해 분석해 볼 때, LBH의 특징을 전형적으로 드러내는 책은 에스라

10) 한정된 지면에서 이에 관한 논의를 자세히 다룰 수는 없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미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들이 적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핵심적인 논점들을 요약적으로만 제시한다. 히브리어의 통시성과 관련한 다음의 최근 연구를 참고하라. 김동혁, “성서 히브리어의 언어 변이”, 『구약논단』 28:1 (2022), 8-33.

11) EBH(초기 성서 히브리어)는 SBH(Standard Biblical Hebrew, 표준 성서 히브리어) 및 CBH(Classical Biblical Hebrew, 고전 성서 히브리어)로도 불린다.

12) A. Hurvitz, *בין לשון ללשון: לתולדות לשון המקרא בימי בית שני* (Yerushalayim: Mosad Byalik, 1972). LBH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LBH 단어가 후대의 책들에 주로 나타나야 하며, 이에 대응하는 EBH 단어가 포로기 이전 본문에 주되게 사용되어야 하고, 성서 이후 미슈나 히브리어와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서, 느헤미야서, 그리고 역대기 등이다.

다른 한편, 구약성서 내에서 성서 히브리어의 통시적 변이의 증거가 명확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후르비츠의 방법론에 반박하는 영(I. Young), 레젝코(R. Rezetko), 에렌스베르드(M. Ehrensverd) 등의 진영은 EBH와 LBH로 구별되는 것처럼 보이는 언어적 차이는 연대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언어 형태의 다양성에서 기인한 것이라 본다. 이들은 이러한 입장을 주장하기 위해 ‘양층언어’(diglossia)<sup>13)</sup>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히브리어 본문 상에서 나타나는 언어 사용 방식의 차이는 통시적 언어 변이의 결과가 아니라 저자의 임의적인 ‘선택’의 결과라 주장한다.<sup>14)</sup>

그리고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는 두 진영의 방법론과는 다른 제3의 입장자, 두 진영의 입장을 보완하고자 하는 견해는 ‘사회언어학적’(sociolinguistic) 접근 방식이다. 폴락(F. Polak),<sup>15)</sup> 김동혁<sup>16)</sup> 등이 이러한 입장에 속하는데, 이는 언어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는 접근하는 방식이다.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언어를 통해 표현되는 담화나 글의 의미는 어떤 환경과 문맥 가운데 전해지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언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대나, 지리적 환경, 그리고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나이나 교육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13) ‘양층언어’의 대표적인 예는 아랍어이다. 아랍어의 경우 쿠란 아랍어에 기초한 ‘표준 아랍어’(문어)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발전한 ‘방언 아랍어’(구어)로 나뉘어 사용된다.

14) 특히 다음을 보라. I. Young, R. Rezetko and M. Ehrensverd, *Linguistic Dating of Biblical Texts*, vol. 2, 72-105.

15) 폴락은 포로 후기의 문헌이 대체로 구문론적으로 한정형 동사 중심의 단순 문장보다는 명사 문장 중심의 복합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경향성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는 포로기 이후 유다가 경험했던 ‘페르시아 서기관식 글쓰기’의 영향이라고 본다. 그래서 그는 동사 중심의 단순 문장은 비교적 오래된 구어의 특징을, 그리고 명사 중심의 복합 문장은 그보다 후대의 문어적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라 보았다. F. Polak, “The Oral and the Written: Syntax, Stylistics and the Development of Biblical Prose Narrative”, *JANES* 26 (1998), 59-105.

16) 김동혁은 언어를 구사하는 사회적 계층의 차이에서 기인한 언어 변화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는 후르비츠와 그를 반박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쟁점이 되는 다양한 예들을 열거하고, 비평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언어 변이는 특정한 시기를 기준으로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님을 지적하면서도(후르비츠에 대한 비판), 언어 사용 방식의 변화는 전적으로 단순히 선택의 결과가 아닌 통시적으로 변이하는 속성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주장하였다(이안영 등에 대한 비판). 그는 두 진영의 견해가 내포하는 약점을 보완하고자 하며, 언어의 변화 양상의 복잡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Dong-Hyuk Kim, *Early Biblical Hebrew, Late Biblical Hebrew and Linguistic Variability*, 151-161; 김동혁, “성서 본문의 언어학적 연대 결정에 관한 논쟁과 언어 변이성 개념에 근거한 그 이론적 평가”, 『캐논앤컬처』 6:2 (2012), 137-164.

## 2.2. 에스더서 언어의 통시성에 관한 연구

에스더서 언어의 통시성과 관련하여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바는 에스더서 언어의 통시적 복잡성이다. 에스더서에는 EBH와 LBH의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어떤 요소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 에스더서의 언어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sup>17)</sup> 에스더서의 언어 특징과 관련한 종합적인 연구는 손에 꼽을 정도인데, 필자는 로버트 폴진(R. Polzin), 로널드 버지(R. L. Bergey), 엘리후 나타나엘(E. Nathanael), 그리고 로버트 홀스테드(R. D. Holmstedt) 등의 연구를 검토하고 정리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에스더서의 일부 통시적 언어 요소와 관련하여 사회언어학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몇몇 연구들 또한 살펴볼 것이다.

### 2.2.1. 로버트 폴진(R. Polzin)

폴진은 성서 히브리어의 통시성에 대한 연구사 가운데 선구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는 역대기사가(Chronicler)의 책들 가운데 LBH의 특징을 전형적으로 드러내는 본문을 중심으로 후기 언어의 특징을 정리한다.<sup>18)</sup> 에스더와 관련하여 할애된 분량은 많지 않지만, 그의 연구는 에스더서의 LBH 특징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구문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할 만하다. 폴진이 지적하는 에스더서의 LBH 특징은 다음과 같다: וְיָדָי 없이 사용되는 [부정사 + כִּי / כֵּן] 구문의 높은 비율(1:4, 5; 2:7, 12, 15, 19; 5:9; 9:25), EBH에서 단수로만 표현되는 단어의 복수 표현(1:13 עֲתִיּוֹם), 단수형 단어의 반복(עֵרִי וְעֵרִי) 등이다.<sup>19)</sup> 그는 이처럼 에스더서의 언어는 LBH의 특징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EBH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한다. 폴진은 이런 맥락에서 에스더서의 저자가 “성공적으로 고대 히

17) 예를 들면 폴진(R. Polzin)은 에스더서의 언어가 EBH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고체’(Pseudo-Archaism)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R. Polzin, *Late Biblical Hebrew: Toward an History Typology of Biblical Hebrew Prose* [Missoula: Scholars Press, 1976], 3-4), 무어(C. A. Moore)는 LBH의 특징에 집중하고 있다(C. A. Moore, *Esther*, AB 7B [Garden City: Doubleday & Company, Inc., 1971], LVII).

18) 그는 역대기사가의 책들(느헤미야, 에스라, 역대기상하) 가운데에서도 사무엘서/열왕기서와 병행하지 않는 역대기 본문들, 느헤미야의 회상 부분(N1)을 제외한 나머지 느헤미야 본문(N2), 그리고 에스라서 등을 중심 본문으로 삼고, 이를 연대기적으로 앞선 성서의 다른 책들과 비교하여 LBH의 언어적 특징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를 토대로 P(Priestly Source 제사장 문서)의 언어적 통시성을 고찰하여 P가 역대기사가의 책들보다 연대기적으로 이른 시기의 언어 특징을 보이고 있음을 제안했다: JE → Court History → Dtr → P(g) → P(s) → Chr. → Ezra → N2. R. Polzin, *Late Biblical Hebrew*, 113-114.

19) *Ibid.*, 74-75.

브리어 문체를 모방”하고 있다고 말한다.<sup>20)</sup>

## 2.2.2. 로날드 버지(R. L. Bergery)

버지는 에스더서 연구사에 있어 처음으로 에스더서 언어의 통시성에 초점을 맞춘 단행본 분량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sup>21)</sup> 이 연구는 히브리어의 통시성과 관련하여, 단어와 구문의 ‘분포’, ‘대조’, 그리고 ‘랍비 문헌들과의 비교’ 등의 방법론적 절차를 통해 EBH와 LBH의 언어적 특징을 구분하는 후르비츠의 통시적 언어 분석 방식에 기초하여 에스더서의 본문을 관찰하였다.<sup>22)</sup> 그 결과 버지는 폴진이 제시한 LBH 요소 외에도 에스더의 많은 문법 요소들이 LBH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음을 주장했고, 에스더서 내에서 나타나는 문법적인 발전(어형, 철자, 음운, 구문)과 어휘의 발전(단어, 표현 방식)을 반영하는 LBH 목록 58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sup>23)</sup>

כתב/צוה על, כתב, כשר הדבר לפני, כנס, כל יום ויום, ישט, ירושלים, יקר, קבל, פתגם, עשה כרצון, עמוד, על ככה, נבעת, מלכות, מאמר, לשון, כתר, תכריך, שתיה, שרביט, שנה נז, שנה, שלט, שאר, רצפה, קים על נפש, קים, חכר, איש היה ... ושמו, אין + 구문형 부정사, אגרת, תקף, ביום X לחדש X, בזה, בוץ, בו, בהל, 동사, 접미어가 부가된 동사, הוא יהודי, דת, גזר (על), גבה חמשים אמה, בשנת X למלכות X, בקשה, בכך, יום טוב, טוב + על, חיה, זעק-זעקה, זמן, זוע, זהב וכסף, ויישב (הדבר) לפני, יותר נז-

그런데 버지는 폴진과 유사하게 에스더서 내에서 EBH의 속성 또한 다수 나타남을 지적하면서도, 에스더서 내의 EBH 요소는 본문의 연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 없다고 본다.<sup>24)</sup> 그는 언어가 통시적인 변이 과정을 거치면서 EBH와 LBH가 서로 공존하다가 결국 LBH로 교체되는 흐름이 구약성서

20) Ibid., 3. 폴진은 느헤미야서 본문을 ‘느헤미야의 기억’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N1)과 그 외의 부분(N2)으로 나누고 있다. 그는 N1이 에스더서와 같이 EBH와 LBH가 혼재된 성격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한다(Ibid., 4).

21) R. Bergery, “The Book Of Esther — Its Place in The Linguistic Milieu Of Post-exilic Biblical Hebrew Prose: A Study in Late Biblical Hebrew”, Ph.D. Dissertation (Dropsie College for Hebrew and Cognate Learning, 1983); 다음의 논문 또한 참고하라. R. Bergery, “Late Linguistic Features in Esther”, *Jewish Quarterly Review* 75:1 (1984), 66-78.

22) R. Bergery, “The Book Of Esther — Its Place in The Linguistic Milieu Of Post-exilic Biblical Hebrew Prose: A Study in Late Biblical Hebrew”, 1-26.

23) 이 목록은 그의 논문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잘 정리되어 있다. Ibid., 207.

24) Ibid., 172, n. 1.

내의 후대 본문과 MH 문헌에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sup>25)</sup> 따라서 다양한 통시적 언어 요소들이 공존하는 현상이 LBH의 자연스러운 특징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후르비츠의 방법론을 따르는 버지에게 있어 EBH와 LBH의 요소가 공존하는 본문에서는 LBH의 용례를 통해 본문의 후대성이 입증된다. 즉, EBH와 LBH가 공존하는 본문의 연대를 파악할 때, LBH의 특징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 2.2.3. 엘리후 나타나엘(E. Nathanael)

본 논의를 위해 그다음으로 참고할 만한 연구는 나타나엘의 논문이다.<sup>26)</sup> 그는 기본적으로 이른 시기의 성서 히브리어와 후기 히브리어의 특성을 균형 있게 보려 했다. 나타나엘은 EBH와 LBH의 분류 방식이 아닌 성서 히브리어(BH)와 미슈나 히브리어(MH)를 분류 기준으로 삼는다.<sup>27)</sup> 그럼에도 버지가 제시한 LBH의 특징과 나타나엘이 본 MH의 특징은 많은 부분 유사하다. 그는 에스더서에서 BH와 MH가 혼재하는 언어적 특징을 에스더서의 형성 과정과 연관시킨다. 그는 후대 랍비 문헌에서 언급되는 에스더서의 저작에 대한 다양한 해석 전통을 종합하여, 에스더/모르드개,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의 ‘대회당 사람들’(כנסת הגדולה)이 에스더서의 형성 과정에 관여했음을 제안한다.<sup>28)</sup> 나타나엘에 따르면 에스더/모르드개는 여전히 성서 시대의 언어 유산을 이어받은 세대이며, 에스더서 내 BH 특징을 드러내는 언어 표현에 영향을 준 이들이다.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대회당 사람들’은 후대의 MH 언어에 익숙한 이들이었기 때문에, 에스더의 최종 편집 과정에서 이들의 영향을 받아 MH의 요소가 추가된 것이라 본다.<sup>29)</sup> 흥미롭게도 이 가설은 에스더서가 디아스포라의 삶의 자리가 아닌 예루살렘에서 완성된 것으로 본다. 이를 종합하여 나타나엘은 에스더서의 ‘이중 편집’을 통해 BH와 MH의 특징이 공존하게 된 것이라 주장한다.

그리고 나타나엘은 에스더서 본문에 나타난 철자법, 문법, 그리고 어휘의 주요 특징을 제시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는 BH와 MH의 언어가

25) Ibid., 173-174.

26) E. Nathanael, “לשון בחחפושת: לשונה של מנילח אסתר”, A. Bezek, ed., *לשון 77 ספר דניא אסתר* (Elon Shbut: Tabunot, 1996), 171-193.

27) 나타나엘(E. Nathanael)이 분류하는 통시적 언어 분류 방식에서 MH는 대체로 LBH를 포괄하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분류 방식이 다소 모호해 보이기도 한다. 그의 연구에서 BH는 다른 학자들의 EBH와 대응하는데, 일부 LBH의 요소가 BH로 분류되기도 한다.

28) Ibid., 174

29) Ibid., 173-175. 나타나엘의 주장은 상당 부분 유대 문헌의 기록에 근거한다.



공존하고 있다는 점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버지와 달리 철자법, 문법, 그리고 어휘에 있어 EBH와 LBH의 성격을 균형 있게 제시하려 한다. 나타나엘이 제시하는 에스더서의 주요 언어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30)</sup>

	BH (EBH / LBH 일부)	MH (LBH)
철자법	- 불완전서법 1:1 מִלֵּךְ; 1:4 בהראתו	- 완전서법 1:4 גְּדוּלְתוֹ; 1:5 ובמלואת
문법	- 지시대명사 זאת (*MH זו) - 관계대명사 אשר - 부사 ככה (*MH כִּךְ) - 조건부사 אם - 의문사 ה - 바이크톨형 - 전치사+부정사(1:2 כשבת) <sup>31)</sup> - 절대형 부정사 사용	- 인칭대명사 אני (*BH אנכי)  - 조건부사(부정) אילו  - 동명사형(פעולה)의 빈번한 사용 <sup>32)</sup> - אין + 분사 (לא + 분사) - 긴 모달형 동사(תקטלונה)의 부재 - 니팔형 동사의 높은 비율 - 에스더에서만 쓰이는 히트파엘 형태 (מתהלחל, ותתהלחל, מתיהדים)
어휘		- 페르시아어와 아람어의 빈번한 용례 - 에스더서에만 나타나는 단어들과 Hapax legomena בזיון, ביתן, בהט, אנס, אמנה, אברן, תתחלח, הצלה, הנחה, דר, גנוים, מואמר, כתר, כרפס, יושיט, התיהר, מרוקים, תמרוקים, נזק, סחרת, פרשה, שרביט, שתיה, תכריך, 등

나타나엘은 위와 같이 BH와 MH의 언어 요소들이 공존하고 있는 에스더

30) 아래의 표는 Ibid., 176-192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표이다.

31) 버지(R. L. Bergey)는 היה 동사와 함께 나오지 않는 이러한 형태를 LBH의 특징이라 본다(R. L. Bergey, "The Book Of Esther", 52-55).

32) 나타나엘은 쿠크의 견해에 따라 MH에서는 동명사형이 BH의 절대형을 대체해 나갔음을 제시하고 있다. E. Nathanael, "לשון בתהפושח: לשונה של מגילה אסתר", 181, n. 30. BH에서도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MH만큼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칼 동사의 동명사 어형은 קטלה(קטילה)이며, 피엘의 동명사 어형은 קטול인데 LBH나 MH에서는 아람어의 영향으로 קטלה 형태가 나타난다. 에스더서에는 칼 동사 동명사형(שִׁטְהָה / שִׁטְהָה)과 아람어의 영향을 받은 피엘 동사 동명사형(בִּקְטָה)이 모두 나타난다.

서의 언어 성격을 보여주면서 이 책의 언어가 과도기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음을 부각한다. 그는 MH의 언어 특성이 에스더서에 다수 반영되어 있으면서도, 여전히 전반적으로 남아있는 BH의 언어 요소는 에스더서의 언어를 성공적으로 성서 히브리어처럼 보이게 함으로 앞선 성서 문헌들과의 긴밀한 연관성을 형성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주장한다.<sup>33)</sup>

#### 2.2.4. 로버트 홀스테드(R. D. Holmstedt)

네 번째로 살펴볼 에스더서의 언어적 통시성에 관한 단행본 분량의 가장 최신 연구는 촘스키(N. Chomsky)의 구조주의 언어 이론을 따르는 대표적인 생성문법주의자로 알려진 홀스테드의 연구이다.<sup>34)</sup> 그는 이 책에서 에스더서 본문 전체를 언어적이고 문법적인 관점에서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그는 버지의 연구가 에스더서 언어의 통시적 특징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를 제시하기는 하지만, 언어 변이의 ‘요인’에 대한 분석 방식이 다소 확실적이라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홀스테드는 언어 변이에 대한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sup>35)</sup> 언어 변이의 원인과 작용 방식(mechanism)을 설명하기 위해 그는 먼저 외부적 요인으로서 ‘외래어 차용’(borrowing)을 예로 들고 있다.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왕궁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페르시아 차용어들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차용어들 가운데에는 히브리어로는 표현 불가능한 페르시아 관직에 대한 명칭들(אֲחֻשְׁרָפִים, כַּרְפָּס)이 있는가 하면, 히브리어로 표현할 수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페르시아어를 차용한 용례가 있다(שָׂרִים/פְּרָתִים; חֶקֶת/חֶקֶת, מִשְׁפָּט, תּוֹרָה; מִשְׁפָּט/פְּתָנִים; רֶבֶר, רַבֵּר). 홀스테드는 ‘선택적이고 의도적인 차용어’는 저자와 독자 모두 ‘이중 언어’를 이해하고 있음을 함축하고 있으며, 히브리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유대인의 문화와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페르시아인의 문화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차용어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sup>36)</sup> 그리고 홀스테드는 언어 변이의 내부적 요인으로서 ‘재평가와 확장’(reanalysis and extension)을 들고 있다. ‘재평가’란 표면적으로는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33) Ibid., 192-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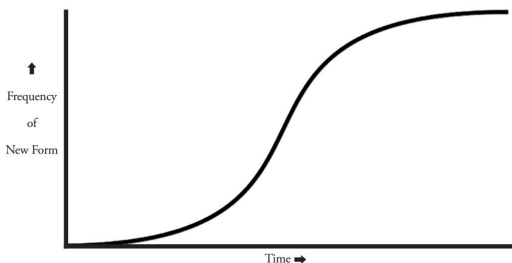
34) R. D. Holmstedt, *Esther: A Handbook on the Hebrew Text* (Waco: Baylor University Press Waco, 2015).

35) Ibid., 18-19.

36) Ibid., 19-20. 성서에서의 페르시아어 사용과 관련하여 히브리어와 고대 히브리어 사이의 접촉에 관해 연구한 다음의 논의를 참고하라. A. Wilson-Wright, “From Persepolis to Jerusalem: A Reevaluation of Old Persian-Hebrew Contact in the Achaemenid Period”, *JT* 65 (2015), 152-167.

용법과 의미로 변이된 경우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와 반대로 ‘확장’은 같은 의미와 용법을 갖지만, 표현 방식이 변화된 경우를 가리킨다.<sup>37)</sup>

홈스테드는 언어 변이가 특정한 시점을 기점으로 하여 EBH와 LBH의 분포를 엄격히 구별하는 후르비츠의 방법론에 반대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S-곡선 형태의 언어 변이 흐름 모델이 후르비츠의 언어 변이 모델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sup>38)</sup> 그는 S-곡선은 이른 시기의 언어와 후대의 언어가 공존하는 본문에서 이러한 다양성이 통시적인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본다. 홈스테드는 이 방법론을 적용하면서 에스더서 내에서 EBH와 LBH를 대표하는 각



Book	ממלכה	מלכות	% new (מלכות)	Period
Deut	7	0	0	Early
2 Sam	6	0	0	
Isa 1-39 <sup>6</sup>	12	0	0	
1 Kgs	12	1	8	Middle
1 Sam	6	1	14	
Jer	17	3	15	
2 Chr	19	17	47	Late
Pss	6	6	50	
Qum	36	52	59	
1 Chr	3	11	79	
Ezra (Heb)	1	6	86	
Esth	0	26	100	
Dan (Heb)	0	16	100	
Mish	0	20	100	

기 다른 표현 방식이나 문법의 비율이 성서의 각 책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관찰하였다. 예를 들어 ממלכה와 מלכות의 분포를 나타내는 홈스테드가 제시한 표를 참고하라.<sup>39)</sup> 표에서 볼 수 있듯이 מלכות의 비율이 후기 시대에 급격히 높아지는 S-곡선을 형성하고 있으며, 에스더서에서는 오직 מלכות만 나타난다. 이러한 측면에서 에스더서의 מלכות은 LBH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 기초하여 홈스테드는 버지가 제시한 에스더서의 LBH 요소들 가운데 통계적인 면에서 S-곡선을 충족할 만큼 유의미한 빈도를 충족하지 못하는 요소들을 상당 부분 걸러내었고, 다음의 14개의 목록을 LBH의 지표로 받아들인다: מלכות, ויום, כל-יום, 목적격 인칭 접미어가 부가된 동사,

37) 그는 재평가의 예로 조건 부사 אם이 부정적인 의미를, 그리고 לא אם가 긍정적인 의미로 변화한 예를 들고 있다(사 22:14; 왕상 20:23). 그리고 확장의 예는 히벨 동사에서 발견되는 모음 변화이다(ישניר / השניר). Ibid., 20-21.

38) Ibid., 21-22. (그래프는 22쪽에서 발췌)

39) Ibid., 25-26. (표는 26쪽에서 발췌)

יקר (40) 홈스테드는 이러한 통계 조사를 통해 에스더서는 버지가 제시하는 만큼 현저한 언어 변이의 양상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후기 언어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MH로 발전해 가는 자연스럽고 과도기적인 성격의 언어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제시한다.

2.2.5. 사회언어학적 접근 방법

비록 에스더서에만 초점을 둔 연구는 아니지만 에스더서의 언어 특성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 주는 사회언어학의 방법론에 기반한 연구들을 참고해 볼 만하다. 여기에서는 앞서 언급한 폴락과 김동혁의 연구를 정리해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폴락은 역대기,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그리고 에스더 등과 같은 포로 후기 문헌에서 사용되는 구문 형태와 이 책들보다 연대기적으로 앞선 시대의 문헌인 사무엘서, 열왕기서의 구문 형태를 자세히 비교하였다. 그 결과 그는 포로 후기 문헌에서 명사와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되는 동사형(nominal verbal forms, 분사와 구문형 부정사)의 비율이 정형 동사형(finite forms)의 비율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단문보다는 종속절이 다수 포함되어있는 복문의 구조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sup>41)</sup> 그가 제시하는 에스더서의 몇 가지 특징을 예와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42)</sup>

(1) 긴 명사 요소들 (66쪽)	אֵל אַחְשֶׁר־רַפְּנֵי־הַמֶּלֶךְ וְאֵל־הַפְּחוֹת אֲשֶׁר עַל־מְדִינָהּ וּמְדִינָהּ (3:12)
(2) 여러 명사 요소들이 하나의 동사에 종속 (72쪽)	וְנִשְׁלוֹת סִפְרִים בְּיַד הָרָצִים אֶל־כָּל־מְדִינוֹת הַמֶּלֶךְ (3:13) וְהַמֶּלֶךְ שָׁב מִגִּנַּת הַבֵּיתָן אֶל־בֵּית מִשְׁתֵּה הַיַּיִן (7:8)
(3)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절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 (73-74쪽)	*에스더서에서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절이 나오는 일부 용례 וְאֵלוֹ לְעִבְדִים וְלִשְׁפָחוֹת נִמְכְּרָנוּ הִחַרְשָׁתִי (7:4) תִּלְהֹו עָלָיו (7:9)

40) Ibid., 265-269. 이 페이지에서 홈스테드(R. D. Holmstedt)는 버지가 제안한 목록들 가운데에서 S-곡선 이론에 부합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잘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다.

41) F. Polak, “The Oral and the Written”, 63-65.

42) 아래의 표에 표기된 페이지 숫자는 위에 인용된 폴락의 연구 논문(“The Oral and the Written”)의 페이지를 가리킨다.

<p>(4) 종속절을 선호 (75쪽)</p>	<p>וְנִשְׁלַח סִפְרִים ... לְהַשְׁמִיד לְהָרַג וּלְאַבֵּד אֶת־כָּל־הַיְּהוּדִים (3:13)          וּשְׁלַח לְבוֹז ...          פִּתְשָׁנוּ הַכֶּתֶב לְהַנְתֵּן דָּת בְּכָל־מְדִינָה וּמְדִינָה (3:14)          גָּלוּי לְכָל־הָעַמִּים</p>
------------------------------	------------------------------------------------------------------------------------------------------------------------------------------------------------------------------------------------------------------------------------------------------

폴락은 후대의 본문에서 나타나는 명사적 요소들의 높은 비율과 빈번한 복문의 사용은 페르시아 서기관 관습의 영향을 받은 ‘문어체’의 특징이라 주장한다. 그리고 이와 대조적으로 동사 비율이 높은 이른 시기 본문의 특징은 ‘구어체’의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라 여긴다. 폴락이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에스더서 구문은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문헌들 가운데에서도 높은 명사 요소의 비율을 보인다.<sup>43)</sup> 따라서 폴락의 분석에 따르면 에스더서가 적지 않은 EBH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문체상으로 LBH의 성격이 주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김동혁은 후르비츠가 제시했던 EBH와 LBH의 언어 특징을 나누는 기준이 정당한지 몇 가지 예시를 통해 검증한다. 그는 특별히 사회적인 계층 구조가 언어 변이에 미치는 영향을 염두에 두고 ‘위로부터의 변이’(의도적 변이, 산문)와 ‘아래로부터의 변이’(자연스럽고 무의식적인 변이, 기록된 담화)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sup>44)</sup> 그는 성서 히브리어의 통시성을 드러낸다고 여겨져 온 언어 요소들이 연대기적으로 어떠한 분포 양상을 보이는지 파악하기 위해, 각 시대를 대표하는 구약성서의 책을 기준으로 통계 데이터를 산출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어느 시점에서 급격한 언어 변이가 나타났는지를 관찰하였고, ‘포로기’를 기준으로 한 양극화된 관점에서 언어의 통시성을 파악하려는 후르비츠 방법론의 약점을 지적하고자 했다.

김동혁의 연구 가운데 에스더서의 언어와 관련한 연구에 있어 참고할 만한 부분은 (1) ‘וְיָהִי/וְיָהִי + 전치사 + 구문형 부정사 vs. 전치사 + 구문형 부정사’, (2) ‘XXX הַמֶּלֶךְ vs. הַמֶּלֶךְ XXX’, (3) ‘מַמְלֹכָה vs. מְלֻכּוֹת’, 그리고 (4) ‘צַעֲקָ vs. זַעֲקָ’ 등에 관한 그의 관찰이다. 이를 에스더서와 관련한 내용만을 추려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43) 스(0.383), 예(0.306), 느 8-10(0.322), 대하 29-36(0.306), 단 1:1-2:3(0.268) (Ibid., 70).

44) Dong-Hyuk Kim, *Early Biblical Hebrew, Late Biblical Hebrew, and Linguistic Variability*, 89-96. 김동혁이 제시하는 이러한 변이의 구분은 사회언어학적인 구분 방식이다. ‘아래로부터의 변이’란 어떤 불특정한 이유로 인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언어 변이 현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이는 주로 사회적으로 하위 계층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아래로부터의 변이’라 정의된다. 이와 대조되는 사회언어적 변이는 ‘위로부터의 변이’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상위 계층의 의도에 의해 주도되는 변이로 새로운 개념의 도입이나 외래어 유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오래된 표현 방식	새로운 표현 방식	변이 요인
(1)	ויה/ויה + 부정사 (3)	ויה/ויה(x) + 부정사 (6)	담화문 / 아래로부터 (포로기)
(2)	XXX המלך (25)	המלך XXX (0) <sup>45)</sup>	산문 / 위로부터 (포로기 이후)
(3)	ממלכה (0)	מלכות (26)	산문 / 위로부터 (포로기 이후)
(4)	זעק (0)	זעק (3)	담화문 / 아래로부터 (포로기 이전 말엽/포로기 초)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언어 특성을 위 4가지만으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위 대표적인 예들을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이(1, 4)와 저자의 의도를 반영하는 임의적인 변이(2, 3)가 공존하는 현상을 참고할 수 있다.

위 선행 연구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에스더서의 언어 특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전달하고 있는데,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모든 연구가 공통되게 드러내는 바는 에스더서 내에 다양한 언어적 특성을 반영하는 요소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몇몇 학자들은 이러한 언어 요소의 복잡성에는 과도기적 통시성뿐만 아니라, 저자의 의도에 따른 선택 또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필자는 위의 연구들을 참고하면서 에스더서 언어의 통시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제시되었던 언어 요소들 가운데 일부가 노벨라 장르로 분류되는 에스더서 내에 함축된 저자의 문학적 의도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물론, 필자는 에스더서 언어의 통시성을 대표하는 요소들이 모두 저자의 의도에 따른 선택의 결과라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에스더서 본문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언어의 다양성이 획일적인 통시성의 측면에서만 고려될 수 없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의 논의에서는 언어학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해석적이고 문학적인 접근 방식 또한 주요하게 고려될 것이다.

### 3. 에스더서 언어 표현 방식의 다양한 요인들

#### 3.1. 담화문과 EBH/LBH의 관계성

폴진은 LBH에 대한 그의 연구에서, 언어의 형식적인 유형을 기준으로

45) 김동혁은 왕비(המלכה)를 가리킬 때는 ‘새로운 표현 방식’을 사용한다고 지적한다(20회 중 18회). 그는 에스더서에서 사용되는 이러한 표현 방식은 저자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방식이라 본다. Ibid., 118-119.

느헤미야서를 회상 본문(N1)과 그 외의 본문(N2)으로 분류한다. 그는 느헤미야의 자기 담화 형식의 회상 본문인 N1은 EBH의 성격을, 그리고 N2는 LBH의 특징을 다수 나타내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sup>46)</sup> 그리고 폴락은 성서에 기술된 구문 구조 유형을 분류하며, 페르시아 시대 유다 방언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의 회상 본문을 이루는 구문 구조가 당시의 문어체보다는 덜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sup>47)</sup> 아람어 문체의 영향이 잘 나타나지 않음을 지적한다. 그래서 폴락은 느헤미야의 회상 본문과 에스라의 회상 본문에 반영된 문체의 독특한 특징이 페르시아 시대 유다 방언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라 본다.<sup>48)</sup> 폴락의 주장에 따르면, 유다 방언은 다소 변칙적인 성격이 강하고 EBH와 후기 문체(아람어의 영향을 받은) 사이의 과도기적 형태를 보인다. 따라서 그는 후기 문헌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페르시아 시대 유다 방언은 EBH의 특징과 LBH의 특징을 어느 정도로 함께 드러내기는 하지만, 기존의 문법과는 변칙적인 특징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문어체 상에서 드러나는 EBH와 LBH의 특성에도 구별됨을 주장한다.<sup>49)</sup> 이와 같이 폴진과 폴락의 연구는 후기 문헌에 기록된 담화문이 일반 문어체와는 어느 정도 구별된 언어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제시한다.

이는 담화문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에스더서의 노벨라로서의 성격을 감안해 볼 때, 에스더서의 언어 특징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통찰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노벨라의 언어는 ‘가공된 언어’의 성격이 더 강할 수 있고, 에스라-느헤미야와는 다른 사회적 배경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폴진과 폴락의 관찰을 에스더서에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구별된 담화문의 특징을 제시하는 폴진과 폴락의 선행 연구는 통시적인 관점에서만 이해되었던 EBH와 LBH의 요소들이 에스더서의 담화문에서 어떻게 변칙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재고하게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는 있다.

46) R. Polzin, *Late Biblical Hebrew*, 73-74.

47) 폴락이 제시하는 페르시아 시대 문어체의 성격과 관련하여 다음을 참고하라. F. H. Polak, “The Judean Speech Community in the Achaemenid Empire”, O. Lipschits and M. Oeming, eds., *Judah and the Judeans in the Persian Period* (Winona Lake, Ind.: Eisenbrauns, 2006), 596-606.

48) *Ibid.*, 606-611.

49) 예를 들어 느헤미야서에서는 **נ**과 함께 나오는 고전적인 청유형(Corhortative) 형식(느 5:10)이 나오기도 하지만,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확장된 청유형이 나오기도 한다(느 5:3). 그리고 **לְבָרְכֶךָ**와 같은 전형적인 EBH 유형이 나타나기도 하고, **לְבָרְכֶךָ**를 대체하는 변칙적 형태인 *wa'eqṭēla*가 나타난다(스 7:28; 8:15; 느 1:5 등). *Ibid.*, 611-614.

필자는 에스더서의 담화문을 화자별로 구분해 보았다. 아래는 버지(58개)와 홈스테드(14개)가 제시하는 에스더서의 후기 히브리어 특징을 대표하는 요소들이 에스더서의 담화문에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분석한 비교표이다.<sup>50)</sup>

화자	유대인 담화		페르시아인 담화	
문장 단위 수	38		87	
단어 단위 수 (문장당 평균 빈도)	366 (9.6)		751 (8.6)	
LBH 표현 수 (전체 단어 대비 비율)	Bergey	Holmstedt	Bergey	Holmstedt
	21 (5.7)	5 (1.3)	42 (5.6)	28 (3.7)

위 통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문장 단위를 기준으로 한 담화문의 수는 페르시아인의 담화문이 유대인 담화문의 수보다 2배 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에스더서가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그만큼 페르시아인의 목소리가 주되게 강조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각 담화문을 이루는 평균적인 단어 단위의 수는 유대인 담화와 페르시아인 담화가 각각 9.6단어와 8.6단어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는 볼 수 없을 만큼 유사한 양이다. 버지가 제시한 LBH 목록을 기준으로 삼아 유대인 담화문과 페르시아인 담화문에서 나타나는 LBH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거의 동일하다. 그런데 홈스테드가 개정된 LBH 목록을 기준으로 보면 LBH의 요소는 유대인 담화에서는 5번, 페르시아인 담화에서는 19번 나타나며, 문장 대비 비율로 계산하면 페르시아인의 담화에서 3배 정도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sup>51)</sup> 즉, LBH의 기준에 대해 더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 유대인 담화문에

50) 여기서 제시된 통계표는 ETCBC 연구소가 만들고 공개한 BHSA(ver. 2021)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만들었다. 이 성서 데이터와 관련한 소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하라. 김경식, “디지털 성서학 플랫폼 — 성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과 디지털 성서학 연구 플랫폼 개발의 방향성”, 『구약논단』 29:2 (2023), 191-228. 담화문을 분류하는 방식을 예를 들어 보자면, “וַיֹּאמֶר הַמֶּלֶךְ לְהֶגְמוֹן הַכֹּסֶף נָתַן לָךְ וְהָעַם לְעִשָׂוֹת בּוֹ כְּשֹׁב בְּעֵינֶיךָ” (에 3:11)에서 וַיֹּאמֶר הַמֶּלֶךְ לְהֶגְמוֹן은 ‘저자 서술문’으로 분류되고, 그 뒷부분이 ‘담화문’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한 구절이 여러 개의 담화문 문장을 포함할 수 있는데, 에 3:8은 4개의 담화문 문장으로 나누어진다. 담화문 데이터는 다음 링크를 참고하라.

[https://github.com/alphalef/digital-biblical-studies/blob/main/Esther-Linguistic-Approach/esther\\_discourse\\_data.csv](https://github.com/alphalef/digital-biblical-studies/blob/main/Esther-Linguistic-Approach/esther_discourse_data.csv)

51) 홈스테드의 제안에 따르면, 유대인 담화문 가운데 나타나는 LBH 표현들은 총 3가지이다: דַּר(4:11,16; 9:13), מַלְכוּת(4:14), כֹּסֶס(4:16). 이 가운데 דַּר는 페르시아어 차용어이고, מַלְכוּת은 아람어 어형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כֹּסֶס는 포로 후기 본문들에서만 나타나는 어휘이다.



서 LBH 요소의 사용이 전반적으로 더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홈스테드의 제안에 기반한 통계는 담화 유형과 EBH/LBH의 구별된 사용 방식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필자는 에스더서 내에 혼재된 언어 특성을 통시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담화문 상에서 나타나는 문학적 의도’ 또한 함축되어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아래에서 그 몇 가지 예를 제시한다.

### 3.2. 동사 + 접미어 vs. 동사 + תָּסַף + 접미어

타동사가 대명사를 목적어로 가질 때, 동사에 목적격 접미어를 바로 부가하는 형태(이하 VSuf)와 목적격 전치사 תָּסַף에 목적격 접미어를 부가하여 표현하는 방식이 있다(이하 VPPsuf). 대체로 전자의 경우가 후기 히브리어의 특징을 반영한다고 본다.<sup>52)</sup> 에스더에서는 VSuf와 VPPsuf의 용례가 각기 17:2로 확연하게 구별된다.<sup>53)</sup>

담화문을 기준으로 VSuf의 용례를 살펴보면 페르시아인 담화문에서 3번 나타나고(6:9; 7:5, 9), 유대인 담화문에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VPPsuf의 용례를 찾아보면 페르시아인 담화문(8:7)과 모르드개의 부림절 서신(9:25)에서 각각 한 번씩 나타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정리해 본다면, 페르시아인의 담화를 특징짓는 형태는 VSuf이고, 이와 대조되는 형태는 VPPsuf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흥미로운 점은 아하수에로 왕은 두 가지 형태를 모두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만의 처형에 대해 언급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담화를 인용하는 대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아하수에로 왕의 담화 – 신하에게) וַיֹּאמֶר הַמֶּלֶךְ תִּלְהוּ עִלַּי 7:9  
 (아하수에로 왕의 담화 – 에스더, 모르드개에게) וַיֹּאמֶר הַמֶּלֶךְ אֶחָשׁוּרֶשׁ 8:7  
 וְאַתּוֹ תִּלּוּ עַל־הָעֵץ  
 (부림절 서신<sup>54)</sup> – 유대인들에게) וְאַתְּ־בָנִי עַל־הָעֵץ 9:25

52) R. Bergey, “The Book of Esther”, 85-89; R. Polzin, *Late Biblical Hebrew*, 32-37.

53) 이 통계는 한정 동사가 목적어를 갖는 용례를 기초로 한 것이다. 홈스테드는 (b)의 형태가 한 번만 나온다고 적고 있지만(R. Holmstedt, *Esther*, 29), 예 8:7과 9:25 등에서 두 번 나타난다. 부정사형까지 포함하면 VSuf는 3번(3:8; 4:7, 8), 그리고 VPPsuf는 한 번 더 나온다(9:22).

54) 여기에 언급된 내용은 9:23로부터 시작되는 모르드개가 작성한 서신의 내용에 포함된다. R. Holmstedt, *Esther*, 247; M. Fox, *Character and Ideology in the Book of Esther*, 2nd ed. (Eugene, OR: Wipf&Stock, 2001), 118-120.

위 용례를 보면 담화자와 담화의 대상을 기준으로 표현 방식이 달라짐을 볼 수 있다. 아하수어로 왕이 신하에게 직접 명령할 때는 VSuf 형태를 사용하여 말하고, 아하수어로 왕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밝힌(8:1) 에스더와 모르드개를 향해 말할 때,<sup>55)</sup> 그리고 모르드개의 부림절 서신문에는 VPPSuf를 사용한다. 엄밀히 말하면 아하수어로 왕이 에스더에게 말하는 구문의 형태는(8:7) ‘전치사 + 접미어 + 동사’(אֲחֵי אֱסֵדְרָה)이다. 이는 앞에 나오는 구문(בֵּית־הַמֶּלֶךְ)과 같이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한 어순 변경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런데 목적격 전치사가 정형 동사 앞에 나오는 경우는 구약성서에서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지만(75회), 에스더서에서는 아하수어로 왕이 말하는 이 부분이 유일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제시하는 논의의 맥락에서 이해해 보면 아하수어로 왕은 EBH로 표현되는 유대인의 담화 방식과 유사한 어법으로 에스더와 모르드개에게 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도치된 변칙적인 구문은 유대 담화 방식과 여전히 구별되는 페르시아인 담화의 특징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맥락에서 VSuf와 VPPSuf 형식은 에스더서 내에서 단순히 통시성을 나타내는 특징이라기보다 유대인과 페르시아인의 담화 형식을 구분하는 지표로 여겨질 수 있다.

### 3.3. כְּתָב vs. סֵפֶר

에스더서에서 왕의 조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는 כְּתָב(3:14; 4:8; 8:8, 13; 9:27), אֲנָרָה(9:26, 29)와 סֵפֶר(1:22; 2:23; 3:13; 8:5, 10; 9:20, 25)가 있다. 담화문을 기준으로 용례를 살펴보면 페르시아인의 담화에서는 כְּתָב(8:8)가 사용되고, 유대인의 담화에서는 סֵפֶר(8:5)가 언급된다. 그리고 부림절 서신에서도 סֵפֶר(9:25)가 사용되고 있다.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담화문은 아래와 같이 에스더와 아하수어로 왕이 대화를 나누는 문맥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55) 이 구문과 관련하여 아하수어로 왕이 왜 유대식 어법을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필자는 담화에 있어 중요한 것은 담화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담화를 듣고 있는 상대방의 정체성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아하수어로 왕의 청자는 유대인인 에스더와 모르드개이다. 그럼에도 아래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이 구절에서 나타나는 아하수어로 왕의 어법은 유대인의 어법과 여전히 구별되는 특징을 일부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위 각 문장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구문은 **לְהַשִּׁיב**이다(VP 동사구). 에스더의 담화(8:5)에서는 조서를 취소해 달라는 에스더의 요청이 먼저 나오고(**לְהַשִּׁיב אֶת־הַסְּפָרִים**), 뒤이어 이 ‘조서의 내용’을 열거한다(PP [목적격] 전치사구). 이에 반해 아하수어로 왕의 담화는(8:8) 조서가 어떤 권위를 가지는지를 **בְּשֵׁם־הַמֶּלֶךְ** 먼저 설명하고 있으며(NP 명사구), 에스더의 담화와는 달리 동사구(VP)를 부정어구(NegP)와 함께 맨 뒤에 넣음으로(**אֵין לְהַשִּׁיב**) 앞선 조서를 취소할 수 없음을 말한다. 즉, 에스더는 조서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반면에, 아하수어로 왕은 조서에 담긴 페르시아 왕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담화의 구문 구조 비교를 통해, 단순히 통시적 차이로만 이해될 수 없는 두 단어의 구별되는 의미를 파악해 볼 수 있다.

### 3.4. קבץ vs. כנס / קהל

일반적으로 **כנס**는 **אסף**, **קבץ**와 대비되는 전형적인 LBH의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로 알려져 있다. 구약성서에서 **כנס**는 주로 후기 본문과 시편에서만 사용되고 있으며,<sup>58)</sup> 에스더서에는 한 번 나타난다(에 4:16). 이 단어와 대비되는 EBH 표현인 **אסף**는 에스더서에서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קבץ**만 3번 사용된다(에 2:3, 8, 19). 이러한 용례는 에스더서 언어의 과도기적인 통시성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 두 단어의 사용은 단순히 통시적인 관점에서가 아닌, 담화문의 측면에서도 이해될 수 있다. 에스더서에서 두 표현은 각기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페르시아인 담화 (2:3)	유대인 담화 (4:16)
וּקְבָצוּ אֶת־כָּל־נְעָרֵי־בְחוּלָה טוֹבַת מְרָאָה אֶל־שׁוּשַׁן הַבִּירָה אֶל־בֵּית הַנָּשִׁים אֶל־יָד הַגָּאֵס סָרִיס הַמֶּלֶךְ שֹׁמֵר הַנָּשִׁים	כָּנֹס אֶת־כָּל־הַיְהוּדִים הַנִּמְצְאִים בְּשׁוּשַׁן וְנֹמְנוּ עָלַי וְאֶל־תֹּאכְלוּ וְאֶל־תִּשְׁתּוּ שְׁלֹשֶׁת יָמִים לַיְלָה

위 두 담화 모두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인 ‘수사’에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을 모으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페르시아인의 담화문에서는 EBH 단어인 **קבץ**의 미완료 시제(jussive의 의미)가 사용되고 있고, 유대인 담화에서는 LBH 단어인 **כנס**의 명령형이 사용되고 있다. 이와 동일한 의미를 나타

58) 사 28:20; 겔 22:21; 39:28; 시 33:7; 147:2; 전 2:8, 26; 3:5; 느 12:44; 대상 22:2.

내는 כנס 어근은 아람어에서도 나타나지만,<sup>59)</sup> קבץ는 그렇지 않다.<sup>60)</sup> 이러한 단어의 성격으로 보면 כנס에는 LBH의 성격이 있고, קבץ는 EBH의 특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담화의 측면에서 보면, 앞서 제시한 두 가지 예가 LBH의 경우는 이방인의 담화, 그리고 EBH가 유대인의 담화에서 나타나는 현상과는 반대된다. 그리고 버지는 כנס와 אסף, קבץ의 통시적 관계성만을 언급하고 있는데,<sup>61)</sup> 에스더서에는 ‘유대인의 모임’을 나타내는 의미로 8장과 9장에서 לקח 또한 언급된다(8:11; 9:2, 15, 16, 18). 이 어근은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왕의 서신에서 처음 언급된다(8:11). 필자는 이 단어의 사용을 유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재고하고자 한다.

비록 에스더서 마소라 본문 내에는 직접적인 종교적 표현이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에스더가 명령하는 금식은 성서 전통에서 ‘회개’의 행위를 함축한다.<sup>62)</sup> 그리고 왕의 조서에서 명하고, 유대인들이 실행한 ‘모임’(קהל)은 자신들의 대적에 대항한 무력 행위임과 동시에 부림절 절기의 기원이 된다. 즉, 금식과 자기방어를 위한 유대인의 모임은 유대 민족의 정체성과 종교성을 강화하는 성격을 가진다. לקח 어근의 명사 형태인 קהלה와 קהל은 성서에서 종교 공동체로서의 모임을 함축하는 용도로 빈번하게 사용된다(신33:4; 느 5:7; 시 89:6; 대상 28:8 등).<sup>63)</sup> 그리고 כנס 어근의 명사 형은 성서에서 한 번도 나타나지는 않지만, MH에서 종교적 모임을 가리키는 의미로 발전하게 된다(קנסת).<sup>64)</sup> 에스더서의 언어가 LBH 내지, MH로 변화하는 과도기 가운데 있다고 생각할 때, 유대인들의 특별한 모임을 가리키는 כנס와 קהל은 에스더 2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קבץ와 차이를 보인다. 폴락은 유대 방언에 관한 연구에서 종교적 맥락에서 표현되는 페르시아 시대 유대 방언이 LBH의 요소들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59) ‘모으다’를 의미하는 아람어 표현 방식은 כנס와 כנסו 등의 두 가지 표현 방식이 있다. 타르쿰 번역에서는 2:3의 단어를 כנס로 번역했고, 4:16에서는 마소라 본문과 동일하게 כנס로 표기했다.

60) 이 두 단어의 또 다른 유의어인 אסף 또한 동일한 의미의 아람어 어근이 있다.

61) R. Bergey, “The Book of Esther”, 129-131.

62) J. Grossman, *Esther: The Outer Narrative and the Hidden Reading* (Winona Lake, Ind.: Eisenbrauns, 2011), 113-114. 에스더서의 종교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다. 한정된 지면에 모두 열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필자의 박사논문의 서론 부분에서 제시하고 있는 참고문헌을 참조하라. Kyoungsik Kim, “Adaptation of the Genres of the Call Scene in Esther 4 and the Battle Report in Esther 8-9”, Ph.D. Dissertation (Bar-Ilan University, 2020), 1, n. 4.

63) 에스더서의 문맥에서 이 동사의 의미와 용법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하라. Ibid., 210-215.

64) M. Jastrow, *A Dictionary of the Targumim, the Talmud Babli and Yerushalmi, and the Midrashic Literature* (London: Luzac&co., 1903), 650.

있다.<sup>65)</sup>

이런 맥락에서 כנס는 통시적인 특성이 있기도 하지만, קבץ와 동일한 의미론적 범주에서 이를 대체하는 것이라기보다, 유대인의 민족적 정체성, 혹은 종교성을 드러내는 모임의 성격을 강조하려는 목적이 내포된 ‘저자의 의도’로 이해되어야 한다.

### 3.5. הָאֱלֹהִים vs. הַשָּׁמַיִם

버지는 에스더서에서 함께 나타나는 הָאֱלֹהִים와 הַשָּׁמַיִם의 통시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전자는 EBH, 그리고 후자는 LBH의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로 규정한다.<sup>66)</sup> 그런데 여기에는 통계상의 문제가 있다. הַשָּׁמַיִם는 후기 문헌에만 나타나기는 하지만 에스더서와 에스라서에서만 나타나고 있다(7번 중, 에스더서에서만 6번). 그리고 הָאֱלֹהִים가 포로기 이전 문헌에만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언어 분포만을 근거로 하여 EBH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두 단어의 전체 용례 24번 가운데 13번이 에스더서에서 사용된다.<sup>67)</sup> 이 책에서 הָאֱלֹהִים가 6번, 그리고 הַשָּׁמַיִם가 7번 사용되는데, 한 번을 제외하고는 같은 구절에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הַשָּׁמַיִם의 경우에도 분포만으로는 이 단어를 LBH의 지표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에스더서에서 הַשָּׁמַיִם와 הָאֱלֹהִים는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의 담화에서만 나타난다. 각 명사를 이루는 어근에서 파생된 ‘동사’의 경우, שָׁמַם는 에스더서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שָׁמַם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다. 에스더서에서 שָׁמַם 동사는 ‘계획하다’(2:21, 23; 3:6; 6:2; 9:2), ‘찾다’(2:2, 15), ‘(호의를) 구하다, 요청하다’(4:8; 7:7) 등의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sup>68)</sup> BDB 사전에 따르면 ‘찾다’, ‘구하다’의 의미를 가진 שָׁמַם의 의미는 후대의 용례이며,<sup>69)</sup> 이 의미를 표현하는 명사형이 바로 הַשָּׁמַיִם이다. ‘요청’의 의미를 가진 שָׁמַם 동사의 후

65) F. Polak, “The Judean Speech Community in the Achaemenid Empire”, 614-617. 폴락은 이러한 언어적 특징은 2차 성전 시대에 성전과 종교적인 영역에서 중심으로 활동했던 이들이 외부와의 빈번한 접촉을 하면서 초래된 결과라 본다(Ibid., 616-617).

66) R. Bergéy, “The Book of Esther”, 133-134.

67) הָאֱלֹהִים 샏 8:24; 삼상 1:17, 27; 2:20; 왕상 2:16, 20; 사 7:11; 시 106:15; 읍 6:8; 예 5:6, 7, 8; 7:2, 3; 9:12; 단 4:14 (16번). הַשָּׁמַיִם 예 5:3, 6, 7, 8; 7:2, 3; 9:12; 스 7:6 (8번).

68) 의미론적으로 분류한 다음의 사전 항목을 참고해보라. R. de Blois, et al., eds., “Semantic Dictionary of Biblical Hebrew”, <https://semanticdictionary.org/semDic.php?databaseType=SDBH&language=en&lemma=שָׁמַם&startPage=1> (2023.9.2.).

69) BDB, 134-135; 느 2:4; 스 8:23; 단 1:8; 시 104:21.

기 용법과 이와 관련된 명사 **בַּקְשָׁה**는 ‘이방 왕궁 내의 권위자를 향한 요청’(느 2:4; 스 7:6; 단 1:8)과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스 8:23; 시 104:21) 등을 의미한다. 이런 차원에서 **בַּקְשָׁה**는 후기 문헌에서 ‘이방 왕궁’이라는 특정한 배경이나 ‘종교적인 맥락’을 반영하는 의미로 확장된 명사라 이해될 수 있다.<sup>70)</sup> 이러한 의미는 에스더에서도 나타난다.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나아가 유대인의 생명을 간절히 구할 것을(4:8 **לְבַקֵּשׁ**) 요청하고,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앞에 과감하게 나아 온 에스더에게 ‘요구’(5:3 **בַּקְשָׁה**)가 무엇인지 묻는다.

이제 **שְׂאֵלָה**와 **בַּקְשָׁה**가 함께 쓰이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의 담화문을 살펴보자.

5:3 [מַה־לָּךְ אֶסְתֵּר הַמְּלִכָּה] [וַיֹּמַר־בַּקְשָׁתְךָ עַד־חֲצֵי הַמְּלָכוֹת] [וַיִּנָּתֵן לָךְ] 5:3  
 (c) (b) (a)  
 5:4 [אִם־עַל־הַמֶּלֶךְ טוֹב]... 5:4  
 (B)

5:6 [מַה־שְּׂאֵלָתְךָ] [וַיִּנָּתֵן לָךְ] [וַיֹּמַר־בַּקְשָׁתְךָ עַד־חֲצֵי הַמְּלָכוֹת] [וַתַּעַשׂ] 5:6  
 (d) (b) (c) (a')  
 5:8 [אִם־מִצְאָתִי חֵן בְּעֵינֵי הַמֶּלֶךְ] [וְאִם־עַל־הַמֶּלֶךְ טוֹב] [לָחַת אֶת־שְׂאֵלָתִי] [וְלַעֲשׂוֹת אֶת־בַּקְשָׁתִי]... 5:8  
 (D) (C) (B) (A)

7:2 [מַה־שְּׂאֵלָתְךָ אֶסְתֵּר הַמְּלִכָּה] [וַתִּנָּתֵן לָךְ] [וַיֹּמַר־בַּקְשָׁתְךָ עַד־חֲצֵי הַמְּלָכוֹת] [וַתַּעַשׂ] 7:2  
 (d) (b) (c') (a')  
 7:3 [אִם־מִצְאָתִי חֵן בְּעֵינֵיךָ הַמֶּלֶךְ] [וְאִם־עַל־הַמֶּלֶךְ טוֹב] [תִּנָּתֵן־לִי נַפְשִׁי בְּשְׂאֵלָתִי וְעַמִּי בְּבַקְשָׁתִי] 7:3  
 (C') (B) (A')

9:12 [וַיֹּמַר־שְׂאֵלָתְךָ] [וַיִּנָּתֵן לָךְ] [וַיֹּמַר־בַּקְשָׁתְךָ] [עוֹד וַתַּעַשׂ] 9:12  
 (d') (b') (c) (a')  
 9:13 [אִם־עַל־הַמֶּלֶךְ טוֹב] [יִנָּתֵן נִסְמָחַר לַיהוּדִים]... 9:13  
 (C'') (B)

위 각 담화의 흐름에서 우리는 **שְׂאֵלָה**가 담화의 미묘한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하수에로 왕의 첫 질문(5:3)은 (b)가 중심이 된다. 위에서 보았듯이 이는 이방 왕궁에서의 요청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그리고

70) 이 명사의 후대성은 의미와 더불어 이 명사가 취하고 있는 아람어 어형을 통해서도 파악될 수 있다 (BDB, 134).

(c)는 에스더의 요구가 실행될 것임을 왕이 보증하는 표현이다. 이에 에스더는 왕을 존중하는 어구인 (B)를 말한 다음,<sup>71)</sup> 왕이 하만과 함께 자신이 준비한 연회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한다(5:4).

이후 왕은 하만과 함께 에스더를 찾아와 다시 묻는데, 그는 이 두 번째 질문에서  $\text{לְאַשְׁרֵי}$ 를 부가한다(5:6). 이에 에스더 또한 왕을 높이는 어구 (A)를 하나 더 부가한다(5:8). 기존의 통시적 이해로 구분해 보면 (b)-(B)는 LBH의 성격, 그리고 (a)-(A)는 EBH의 성격으로 묶일 수 있다. 이러한 확장된 구문은 왕과 에스더의 긴밀한 관계성을 표상한다.  $\text{לְאַשְׁרֵי}$ 를 통한 담화문의 확장은 공식적인 요청을 넘어서 친밀한 관계성을 전제로 하여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인지 묻는 아하수에로의 깊은 관심을 나타내며, 구약성서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존중어인 ‘... בְּעֵינַי הִן אֲסִמְּנָתַי’ 구문은 아하수에로에 대한 더 높은 존중감과 친밀감을 나타내는 효과를 부여한다.<sup>72)</sup> 구문 형식을 보면 (b)-(B)는 매우 정형화되어 거의 변하지 않지만, 이에 반해 (a)-(A)는 계속해서 변칙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만큼 공식적인 어투라기보다 보다 친근하고 자유로운 형식의 담화로 느끼게 한다. 마지막 에스더의 담화(9:13)에서는 (B)가 빠져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의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12절에서 전쟁을 그만 멈추었으면 하는 왕의 의도에 반하여, 수산에서만큼은 하루 더 전쟁을 연장했으면 하는 에스더의 신중하고 공식화된 어투를 전달하는 것이라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text{לְאַשְׁרֵי}$ 와  $\text{וְהָקִיב}$ 는 에스더서 내에서 과도기적인 통시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담화문에서 문학적인 효과를 부여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성서 히브리어의 통시성을 드러내는 지표로 여겨져 온 에스더서의 일부 단어와 구문이 담화문에서 어떤 문학적인 효과와 의미를 부여하는지 고찰해 보았다. 언어는 본질적으로 변화하는 속성을 갖고 있기

71) 일반적으로 (B) 구문은 LBH 용법이라고 여겨진다.

72) 이러한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의 담화에서 나타나는 존중 어법과 수사 방식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하라. B. D. Estelle, “Esther’s Strategies”, *Hebrew Studies* 53 (2012), 68-70; L. M. E. Hare, “Gendered Speech: A Sociolinguistic Study of Conversations between Men and Women in Biblical Narrativ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oronto, 2018), 36-37, 42-43. 특히 우리말 번역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을 또한 참고하라. 김성언, “정중 어법과 우리말 존대법 — 에스더기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37 (2015), 97-100.



때문에, 언어의 통시성은 성서 본문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지만 사회언어학의 관점이 강조하고 있듯이 언어의 다양성과 변이에는 시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맥락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음을 또한 고려해야 한다.

필자는 언어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본문 ‘밖’의 사회적 문맥이나 시대적 요인뿐만 아니라 본문 ‘안’에 내재된 저자의 문학적 의도 또한 면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자의 언어는 저자의 시대와 사회 구조 내에서 형성되는 언어 체계에 항상 구속되지는 않는다. 후대 문헌의 저자, 특히 언어 변이의 과도기를 경험한 저자는 옛 언어와 새로운 언어 모두를 알고 있었을 것이고, 특정한 문학적 의도를 위해 두 다른 언어 요소를 적절히 구분하여 사용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필자가 연구 본문으로 삼은 에스더서는 다양한 문학적 장치와 생동감 있는 담화를 담고 있는 노벨라 장르이기 때문에 문학적 의도가 내포된 언어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적절한 본문이다.

에스더서의 언어의 통시성을 둘러싼 다양한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살펴 보았듯이 에스더서의 언어는 EBH와 LBH가 혼재된 과도기적인 책이라 여겨져 왔다. 필자 역시 이러한 관점에 포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EBH와 LBH의 구별되는 특징이라 여겨져 온 몇몇 표현들이 단순히 통시성의 측면에서만 고려될 수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 담화문 분석을 진행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논의와 분석을 통해 에스더서의 담화문은 등장인물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통시적으로 EBH와 LBH의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라 여겨져 온 일부 구문이나 단어는 저자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사용되었다기보다는 유대인과 페르시아인 사이의 구별되는 언어와 사상을 나타내기 위한 문학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논증하고자 했다.

이처럼 에스더서의 다양한 언어 표현 방식은 단순히 통시적인 복합성의 측면에서만만이 아니라, 저자의 문학적인 의도와 당대의 사회적인 문맥 등을 고려하여 접근할 때,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주제어>(Keywords)

에스더서, 노벨라, 언어적 다양성, 문학적 의도, 통시성, 과도기적 언어.

Book of Esther, Novella, linguistic variety, literary intent, diachronicity, transitional language.

<참고문헌>(References)

- 김경식, “디지털 성서학 플랫폼 — 성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과 디지털 성서학 연구 플랫폼 개발의 방향성”, 「구약논단」 29:2 (2023), 191-228.
- 김동혁, “성서 본문의 언어학적 연대 결정에 관한 논쟁과 언어 변이성 개념에 근거한 그 이론적 평가”, 「캐논앤컬처」 6:2 (2012), 137-164.
- 김동혁, “성서 히브리어의 언어 변이”, 「구약논단」 28:1 (2022), 8-33.
- 김성언, “정중 어법과 우리말 존대법 – 에스더기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37 (2015), 97-100.
- 베를린, A., “역사 노벨라: 롯기, 에스더, 다니엘”, Z. 탈쉬르 편, 『구약 성경문학 탐구』, 한국이스라엘학회 역, 서울: CLC, 2022, 582-599.
- Bergey, R., “Late Linguistic Features in Esther”, *Jewish Quarterly Review* 75:1 (1984), 66-78.
- Bergey, R., “The Book Of Esther — Its Place in The Linguistic Milieu Of Post-exilic Biblical Hebrew Prose: A Study in Late Biblical Hebrew”, Ph.D. Dissertation, Dropsie College for Hebrew and Cognate Learning, 1983.
- Berman, J., *Created Equa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Berman, J., “The Narratological Purpose of Aramaic Prose in Ezra 4.8-6.18”, *Aramaic Studies* 5:2 (2007), 165-191.
- De Blois, R., et al., eds., “Semantic Dictionary of Biblical Hebrew”, <https://semanticdictionary.org/semDic.php?databaseType=SDBH&language=en&lemma=בְּשֵׁרָא&startPage=1> (2023.9.2.)
- Estelle, B. D., “Esther’s Strategies”, *Hebrew Studies* 53 (2012), 61-88.
- Fox, M., *Character and Ideology in the Book of Esther*, 2nd ed., Eugene, OR: Wipf&Stock, 2001.
- Grossman, J., *Esther: The Outer Narrative and the Hidden Reading*, Winona Lake, Ind: Eisenbrauns, 2011.
- Hare, L. M. E., “Gendered Speech: A Sociolinguistic Study of Conversations between Men and Women in Biblical Narrativ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oronto, 2018.
- Holmstedt, R. D., *Esther: A Handbook on the Hebrew Text*, Waco: Baylor University Press Waco, 2015.
- Holmstedt, R. D., *Ruth: A Handbook on the Hebrew Text*, Waco: Baylor University Press, 2010.
- Hurvitz, A., *בין לשון ללשון: לתולדות לשון המקרא בית שני*, Yerushalayim: Mosad Byalik, 1972.



<Abstract>

**Rethinking the Diachronic Variety  
in the Language of the Book of Esther**

Kyoungsik Kim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In this study, I utilize previous scholarly work on the diachronic nature of the language used in the Book of Esther to propose that diachronic variety elements would be indicative of the author's literary intent. The Book of Esther is commonly regarded as exemplifying a transitional language style. However, it is crucial to recognize that the language employed in the Book of Esther, categorized as belonging to the *novella* genre also reflects the deliberate linguistic choices made by the author.

With this in mind, I focus on the discourses found within the text of Esther. In the Book of Esther categorized as the genre of novella, discourses serve as a critical driver of the main plot. I argue that the distinct Jewish and Persian identities are linguistically evident in the discourse. Particularly, I have examined specific discourses from the text of Esther and analyzed their usage of language elements which were considered as the diachronic marker. I find that expressions categorized as Early Biblical Hebrew and Late Biblical Hebrew are not used haphazardly or without criteria; rather, they are deliberately selected and employed to differentiate between Jewish and Persian identities. The findings suggest that certain language elements are best understood as *authorial choices* that reflect the deliberate literary intentions of the author rather than being solely attributed to natural diachronic development.

To comprehensively comprehend linguistic diversity, it is essential to not only consider external factors such as the social context and historical period in which the text was written but also carefully examine the author's literary intentions embedded within the text itself. An author's language is not invariably constrained by the linguistic norms prevailing during their specific time and within their social milieu. Authors of later texts, particularly those who experienced a transitional phase of linguistic development might have been acquainted with both older and newer linguistic forms and skillfully employed

elements from these two distinct linguistic phases for specific literary purposes.

The language employed in the Book of Esther appears to possess characteristics of a transitional work, blending elements from Early Biblical Hebrew and Late Biblical Hebrew. However, as evidenced in this study, the various linguistic expressions in the Book of Esther can be more effectively understood in terms of the author's literary intent rather than solely through the lens of diachronic complexity. This approach allows for a more nuanced and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language used in the Book of Esther.